

ESG Wannabe

SK증권 신성장산업분석팀
 이차전지 윤희진, 3773-9025
 RA 김도현, 3773-9994



배터리 리사이클링 : 국내 폐배터리 수거 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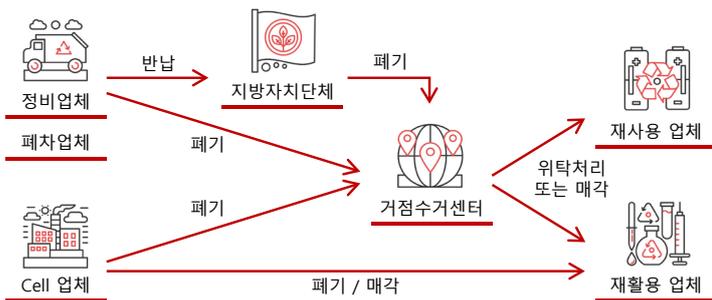
● 폐배터리 수거 시스템 거점화 및 일원화: 미래폐자원 거점 수거센터 구축

- 2021년 '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' 개정, 전기차 소유주의 폐배터리 반납의무 폐지
 - 2021년 1월 1일 이전: 보조금을 수령한 전기차 소유자는 배터리 반납의무 유지, 각 지자체로 반납
 - 2021년 1월 1일 이후: 보조금 수령여부 관계없이 배터리 소유권은 전기차 소유자에게 귀속

● 폐배터리 소유권 및 매각 구조

- 배터리 파손 : 정비업체, 보험사가 배터리 소유권을 인수하거나 거점수거센터 매각 대행
 - 기존 내연차의 자동차 보험과 동일하게 배터리도 파손된 부품으로 취급, 전기차 소유자는 파손 배터리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고 폐배터리 소유권은 보험사에게 이전
 - 폐배터리를 거점수거센터에 매각(또는 정비업체가 매각 대행)해 보험금 지급으로 발생한 비용 일부 보전
 - 전기차 보험(배터리 특약 포함)의 경우에도 일반 자동차 보험의 파손 부품 처리 방식과 동일한 구조
- 전손처리(폐차): 보험사가 전손처리에 대한 보험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차량 소유권은 보험사로 이전
 - 마찬가지로 폐배터리는 거점수거센터에 매각하고 비용 일부 보전, 폐자재도 재활용 자재로 매각
- 내구연한으로 인한 폐차: 폐차업체가 소유자에게 폐차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
 - 폐차업체(자동차해체재활용 등록업체)는 발생한 폐배터리를 거점수거센터에 매각

국내 폐배터리 수거 체계



자료: SK증권

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현황



자료: 환경부, SK이노베이션, SK증권



Compliance Notice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본 보고서의 발간시점에 해당종목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(6개월 기준) 15%이상→매수 / 15%~15%→중립 / -15%미만→매도